추석 이후 '안풍' 어디로…

10월보선 이어 총선·대선정국 풍향계 역할 정치권 관심 집중

'안풍'(安風 : 안철수 바람)에 대한 '추석 민심'의 향배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돌풍이 확산하느냐, 약화하느냐에 따라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판은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 판도까지 크게 흔드는 등 정국의 향배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1년 전의 추석 여론은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 왔고, 그런 점에서 이번 추석을 통해 나타난 안풍의 흐름을 보면 향후의 선거 판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동안 친지들과 친구들과 만남에서 '안풍'이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추석 민심에도 나타난 것이다. 때문에 여야 정치권 모두 안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추석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안풍은 선거판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10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에서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특히 총선에서는 물갈이 여론이 강력하게 확산하면서 기성 정치권의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안풍은 향후 대선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우선 여권의 경우 '박근혜 대세론'을 위협, 한나라당 내에서 유력한 다른 후보가 나타날 개연성이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 대권구도는 '손학규 대 문재인' 양강 구도에서 안 원장까지 포함된 3파전 양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안풍이 계속될 것이란 관점에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안 원장의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한나라당 텃밭인 영남권에선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속에 '안풍의 거품이 꺼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나 전망이 많았으나 비영남권, 특히 수도권에선 안풍의 위력과 이로 인해 정치권에 몰아닥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앞으로 여론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안 원장이 정치인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보이거나 좀 빠질 수 있고, 반대로 박 전 대표의 경우 대세론이 깨질 가능성을 보였지만 아직 깨진 것은 아니며, 앞으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조용환 인준안',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전방위로 충돌하면서 정국은 경색될 공산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박근혜 지지율 혼전

3개 언론사 여론조사 가상대결서 엎치락 뒤치락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엎치락뒤치락하며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실시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대1 가상대결에서 박 전 대표는 45.9%로 안 원장(38.8%)에 7.1%포인트 앞섰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대결에서는 57.1%대 27.0%,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대결에서는 55.4%대 25.6%로 제쳤다.

'여야 구분없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4.7%가 박 전 대표를 꼽아 가장 많았고, 안철수(17.2%) 문재인(7.3%) 손학규(4.6%)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3.7%) 순이었다.

그러나 MBC가 같은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53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서는 안 원장이 1대1 가상대결에서 59.0%의 지지로 32.6%에 그친 박 전 대표를 26.4%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다.

다만, 차기 대선에서 선호하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는 박 전 대표가 29.8%로 안 원장(28.4%)을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뒤를 이어 문 이사장(11.8%), 손 대표(5.5%) 순이었다.

박 전 대표는 또 문 이사장, 손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43.1%대 2.2%, 47.7%대 32.2%로 각각 앞섰다.

또 중앙일보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임의번호걸기) 방식을 이용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박 전 대표와 안 원장이 각각 46.6%와 46.3%로 0.3%포인트의 초박빙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양자 대결에서는 박근혜(60.2%)-손학규(28.8%), 박근혜(57.9%)-문재인(31.3%)과 같이 박 전 대표가 멀찌감치 앞섰다.

박 전 대표와 안 원장, 손 대표 간 3자 대결시에는 박근혜(43.6%)-안철수(38.3%)-손학규(13.9%) 순이었다.

대선 예비후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박 전 대표(32.8%)와 안 원장(22.1%)이 1~2위를 차지했다.

이어 문 이사장(7.7%) 손 대표(5.1%) 정몽준 전 대표(3.9%), 김문수 경기지사(3.2%) 순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K주자 부상속 문재인 '역할론' 주목

안철수·박원순 등장 '야권PK연대' 가시화 관측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산·경남(PK) 민심이 정국의 풍향계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인사 소외와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부상저축은행 사태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PK 민심이 크게 흔들리면서 전통 야도(野都)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경남지사가 당선되고 김정길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44.5%를 지지율을 얻었는가 하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PK 민심은 여권에 등을 돌린 기류가 확연한 상황이다.

특히, 야권 성향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박원순 변호사,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이 PK 출신이라는 점도 민심 변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PK 민심을 엮어내기 위한 문재인 이사장의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문 이사장은 '야권 대통합의 전도사'역을 자임하고 있어 '야권 PK 연대'가 조만간 가시화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 이사장은 최근 광주일보와 인터뷰 등을 통해 "PK 총선 결과가 내년 총선과 대선 판도를 좌우한다"며 "야권 통합을 잘 마무리하고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이사장은 당분간 야권 통합 활동에 '올 인'하면서 안 원장 등 정치권 밖의 야권 인사들과의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문 이사장은 서울시장과 부산 동구청장 등 다음달 재보선 때 필요한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장 보선은 향후 정국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만큼 정치적 의미가 큰 데다 부산 동구청장 역시 PK 민심의 가늠자로서 필승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이사장 측 관계자는 "재보선 승리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야권의 단일후보가 만들어지면 지역을 불문하고 어떻게든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양승태·조용환 국회 표결 무산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는 민주당 추천 조 후보자 선출안 처리를 둘러싼 힘겨루기 끝에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조 후보자의 안보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의 추천 철회를 촉구해왔고, 이날 본회의에 앞서 소속 의원들의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여야는 추석 연휴 직후인 15일 또는 16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가 라운지

김유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에 임명

민주당은 9일 비례대표 초선인 김유정 의원을 원내대변인에 추가 임명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홍영표 의원과 김 의원의 공동 원내대변인 체제로 운영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를 맞아 원내 전략을 가다듬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입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18대 국회에서 대변인과 6·2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김효석 "여의도 42배 산림 비농지 전환"

지난해 여의도 면적의 42배에 달하는 산림이 공장이나 골프장, 택지, 도로 부지 등으로 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효석(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의도 면적(290ha, 윤중로 둑 안쪽 기준)의 42배에 달하는 12만1821ha가 농지 혹은 비농업용 부지로 전환되었다. 이 가운데 농업용은 4.3%에 불과하고 나머지 95.7%는 비농업용이다.

비농업용으로 전환된 산지 가운데 공장 부지가 2064ha로 가장 많았고 골프장(1696ha), 택지(1461ha), 도로(1175ha)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1ha, 충남 1588ha, 경북 1471ha 전남 1268ha, 강원 1138ha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산지를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무분별한 전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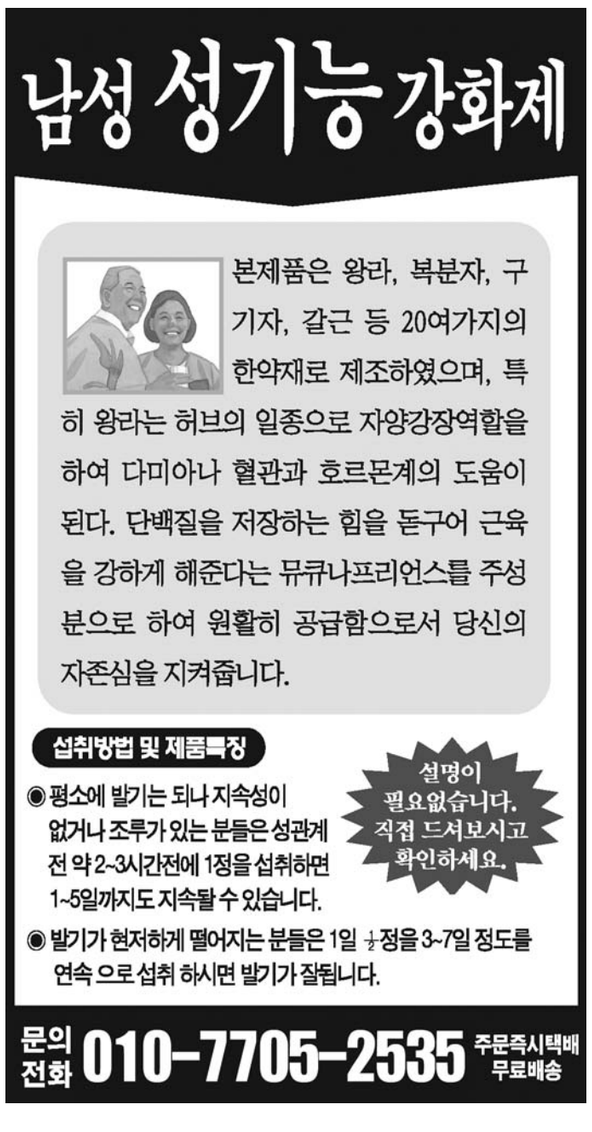
안형환 "지방 문예회관 가동율 저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의 상당수가 제 역할을 못한 채 재정 부담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이 1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93개 문예회관의 평균 가동률은 36.12%에 그쳤다.

가동률이 100%인 곳은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 8곳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평균 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이 20.97%였고, 광주와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등도 30%를 넘지 못했다.

이 같은 저조한 가동률 속에 전국 문예회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7%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